

마크 제닝스 박사, 마크, 강의 21, 마가복음 14:1-25, 수난, 기름부음, 최후의 만찬

© 2024 Mark Jennings 및 Ted Hildebrandt

여기는 마크 제닝스 박사와 그의 마가복음에 대한 가르침입니다. 이것은 세션 21, 마가복음 14:1-25, 수난, 기름부음, 최후의 만찬입니다.

다시 한 번 안녕하세요. 마가복음의 마지막에 다다르면서 다시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마가복음 14장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4장은 마가복음에서 가장 긴 장입니다. 물론, 장별 비전은 나중에 만들어진 것입니다.

하지만 마가복음 14장과 마가복음 15장을 보면 우리는 예수의 수난, 배신, 체포, 재판, 십자가 처형으로 알려진 사건을 접하게 됩니다. 우리가 발견하는 것 중 하나는 마가복음 14장과 마가복음 15장의 수난 이야기가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서 보는 것과 상당히 일치한다는 것입니다. 이는 놀라운 일이 아닙니다. 예수의 십자가 처형이 초기 교회 선포의 핵심이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바울은 자신이 그리스도와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파한다고 선포할 것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심이 중심입니다. 그래서 복음서가 쓰여지기 전의 구전 전통에서도 그리스도의 수난에 대한 서사가 고정된 작품이 되었을 것이라는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펴볼 것 중 하나는 마가의 주제와 그가 다루어 온 주제가 그의 수난에 대한 프레젠테이션에서 어떻게 전면에서 드러나는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마가 복음 전반에 걸쳐 예수께서 말씀하신 예언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특히 그가 어떻게 사람들의 손에 넘겨질 것인지를 살펴볼 것입니다. 우리가 살펴볼 것 중 하나는 십자가 처형입니다. 그런데

, 예수님의 십자가 처형은 아마도 고대 역사에서 가장 확립된 사실 중 하나일 것입니다.

예수라는 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히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심판을 받고 이 시기에 로마 십자가에서 죽었다는 것은 역사적으로 의심할 여지가 거의 없습니다. 하지만 예를 들어 마가복음 14장에서 예수가 죽음으로 가는 동안 권위를 가진 사람이고, 하나님의 왕국을 가져오는 사람도 버림받았다는 것을 볼 것입니다. 마가복음 14장의 아크 중 하나는 목자를 치면 양들이 흩어질 것이라는 진실입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 속에는 물론 신의 위대한 계획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마가는 수난을 묘사하면서 이러한 사건들 중 어느 것도 신의 통제 밖에 있지 않다는 것을 분명히 합니다. 이러한 사건들 중 어느 것도 예수의 삶에서 우연이나 불행한 일이 아닙니다.

그럼 마가복음 14장을 보고 1-11절을 살펴보는 것으로 시작하겠습니다. 1-11절에서 우리는 다시 마가복음 샌드위치 중 하나를 보게 됩니다. 두 개의 이야기가 중간 이야기를 괄호로 묶는 그런 삽입구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종교 지도자가 예수를 죽이고 싶어하는 모습을 묘사합니다.

사실, 유다 자신의 역할이 구체화되기 시작합니다. 그 두 가지의 중간에, 우리는 마가복음에서 이름 없는 여자가 예수에게 기름을 바르고 값비싼 향유가 가득 찬 옥합을 깨뜨리는 아름다운 그림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4절 1-11절에서 마가가 종교 지도자들의 입장과 유다의 온전한 헌신과 사랑과 애정을 담은 입장 사이의 대조를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 마가복음을 읽어가면서 우리가 관례적으로 해왔던 대로, 이 구절들을 살펴보고 마가가 여기서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바를 논의해 봅시다. 마가복음 14장 1-11절입니다. 유월절과 무교절이 이틀 앞으로 다가왔고,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그를 은밀히 체포하여 죽일 방법을 찾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말하였으니, 명절에는 안 된다. 백성에게서 소동이 일어날까 두려우니라. 그가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베다니에 계실 때에, 그가 식탁에 기대앉아 계실 때에, 한 여인이 매우 값비싼 순수한 나르드 향유가 담긴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병을 깨뜨리고 그의 머리에 부었더라. 어떤 사람들은 분노하여 스스로 말하되, 왜 향유를 그렇게 허비하였는가? 향유는 삼백 데나리온 이상에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을 텐데.

그리고 그들은 그녀를 꾸짖었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녀를 내버려 두십시오. 그리고 그녀는 말했습니다. 왜 그녀를 괴롭히십니까? 그녀는 나에게 아름다운 일을 했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은 항상 당신과 함께 있고, 당신이 원할 때마다 그들에게 좋은 일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항상 당신과 함께 있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녀는 할 수 있는 일을 했습니다.

그녀는 장례를 위해 미리 내 몸에 기름을 발랐습니다. 그리고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온 세상에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그녀가 행한 일이 그녀를 기억하여 말해질 것이다. 그러자 열두 제자 중 한 명인 가롯 유다가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예수를 그들에게 넘겨주려고 했다.

그리고 그들이 그것을 듣고 기뻐하며 그에게 돈을 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를 배반할 기회를 찾았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보고, 시작하고, 1절에서 2절까지 보고, 여기서 도움이 되는 타임스탬프 정보도 얻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1절에서 말했듯이 유월절과 무교절 이틀 전입니다.

이제, 충분히 흥미로운 점은, 시간이 작동하는 방식 때문에 이틀이라는 언급은 다소 정확히 파악하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이는; 이틀이라는 아이디어가 일종의 동시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둘째 날을 의미할 수도 있고, 이틀 떨어진 것을 의미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화요일인지 수요일인지를 고정하려고 하면 약간 문제가 됩니다.

하지만 아마도 우리는 이것을 조금 더 확실히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물론 유대인의 유월절은 유대인들이 출애굽 사건, 이집트에서 나온 사건, 특히 열 번째 재앙에서 죽음의 천사가 피를 문힌 히브리인들의 집을 지나쳐 간 마지막 재앙, 즉 어린 양의 피를 그들의 문설주나 그 위에 바른 사건을 집단적으로 기억하는 축제였습니다. 따라서 유월절에 대한 언급은 사람들이 모여서 이것을 위대한 축제 중 하나로, 그들의 신앙을 실천하는 위대한 시간 중 하나로 집단적으로 기억하는 시간입니다.

하지만 유월절 자체는 흥미롭습니다. 유월절의 언어는 유월절 날, 유월절 식사, 그리고 유월절 축제 전체를 가리킬 수 있습니다. 그 용어를 사용하는 방법에는 약간의 유동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것이 실제로 수난주간에 일어나는 사건들의 날짜를 결정하려는 시도에서 약간의 불일치에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공관복음과 요한복음의 관계에서, 요한복음이 안식일이나 유월절을 준비하는 것을 언급할 때, 그 날이 언제인지, 그 준비일은 유월절이 어떻게 이해되는지에 따라 다소 결정됩니다. 그들이 준비하는 유월절의 특정 날이나 안식일을 언급하는 것으로 이해되고 있습니까? 저는 우리가 거기에 약간의 유동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무교절은 유월절과 함께 시작되어 7일 동안 계속됩니다.

이제, 유월절이 포함된 무교절도 이 기념의 일부입니다. 이스라엘이 이집트에서 매우 빨리 떠나야 했을 때와 무교절만 가지고 갈 수 있었던 때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축제 동안 그들은 집에서 누룩을 치우고 무교절만 먹었던 이 시기를 기억합니다.

그리고 제가 이 글을 쓰는 이유는 이 모든 사건이 그리스도의 수난과 함께 전개되고 있기 때문에, 그것들이 유월절의 맥락에서 전개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것들은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히브리 사람들을 노예 상태에서 구출하셨을 때 행하신 위대한 구원 행위의 맥락에서 전개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자신의 백성으로 세우고 그들과 언약을 맺으신 그 위대한 행위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예수님이 나중에 말씀하실 내용의 중요성을 조금 이해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이제 유월절은 유대력 니산월 15일, 우리 달력으로는 대략 4월-5월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유월절 양은 14일째에 희생됩니다.

이제 다시 유대력에서 하루는 저녁에 시작되고, 저녁날은 저녁에 시작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볼 때, 우리가 여기서 보고 있는 것은 아마도 최후의 만찬일 것입니다. 우리가 다루고 있는 것이고, 잠시 후에 더 이야기하겠지만, 유월절 식사이며 유월절은 목요일 밤에 시작됩니다. 그래서 특히 이 사건, 즉 이 향유 향아리 깨기는 이 연대기에서 화요일이나 수요일에 이루어집니다.

이제 우리는 여기 첫 두 구절에서 볼 수 있는 몇 가지 사실을 봅니다. 우리를 놀라게 하지 않는 사실입니다. 하나는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그를 은밀하게 체포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이미 마가복음 3장 이후로 예수를 상대로 음모를 꾸며 죽이려는 생각을 해왔습니다.

우리는 마크의 모든 일을 통해 그것을 추적해 왔습니다. 그리고 지금, 물론, 분명한 것은 그들이 그것을 비공개적으로, 다시 말해, 공개적으로가 아닌 방식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보고 싶어한다는 것입니다. 우려되는 것은 그들이 공개적으로 그것을 한다면 폭동을 일으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께서 성전에서 말씀하실 때, 예를 들어, 그분이 그들을 꾸짖고, 그들에게 소작인에 대한 비유를 말씀하시고, 자신의 행동으로 성전을 예언적으로 저주하실 때 그들이 가졌던 우려의 일부였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를 비밀리에 체포하려는 이러한 욕망의 장면을 설정하는데, 유다는 궁극적으로 그들에게 제공할 것입니다: 이 기회. 하지만 처음 두 구절에서 마가는 즉시 베다니에서 예수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는 베다니에 있는데, 그곳은 그가 매일 밤 가던 곳입니다. 그는 예루살렘으로 들어갈 것이고, 그런 다음 예루살렘을 떠나 베다니에서 밤을

보낼 것입니다. 기억하세요, 축제 기간 동안 예루살렘은 도시 인구의 두 배, 어쩌면 세 배로 커질 수 있다는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순례자들이 들어오고, 도시가 커졌고, 그들은 물론 예루살렘 도시 밖에서 숙소를 찾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흔한 일이 아니었을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가 올리브 산 동쪽에 있는 베다니아에 머물렀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여기서 그는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있다고 합니다.

이제, 여기서 우리는 이 사람이 더 이상 나병이 없는 사람, 더 이상 나병이 없지만 나병을 앓았다고 추정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것이 아이디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당신은 심지어 이 순간, 이 사람 나병 환자 시몬, 당신은 치유의 미묘한 힌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있는데, 전에는 나병 환자였을 때 병 때문에 버림받을 수밖에 없었던 사람이 지금은 환대를 베푸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나병에 대해 전에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예수께서 어디에 머무르시는지 흥미롭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마가는 이 여자가 누구인지, 순수한 나르드의 향유가 담긴 옥합을 가지고 온 여자가 누구인지 말해주지 않습니다. 이제, 아마도 이것은 요한이 요한복음 12장 1-8절에서 묘사하는 것과 같은 사건일 것입니다. 그리고 요한은 나사로의 자매인 마리아, 즉 마리아와 마르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이름을 얻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가 종종 보게 될 것입니다. 마가복음과 요한복음 사이의 상호작용입니다. 마가복음에서 묘사하는 많은 부분이 요한복음에서 가정되고 이해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요한은 마가가 침묵하는 사람들의 이름을 제시하는데, 이것이 많은 사람들이 요한이 실제로 마가를 알고 있거나 마가를 알고 있으며 마가 복음에서 조용했을 법한 몇 가지 일을 분명히 하고 있다고 믿는 이유입니다. 하지만 마가는 그 여인의 이름을 언급하지 않음으로써 초점이 그 여인이 행한 행위, 헌신의 행위에 맞춰져 있음을 나타냅니다. 그리고

그녀가 하는 일은 설화석 플라스크를 가져오는 것인데, 그 자체로 중요합니다.

설화석고 플라스크는 값싼 그릇이 아니지만, 가장 귀중한 향수와 오일을 담는 데 사용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녀는 그 플라스크를 깨뜨립니다. 그녀가 그저 붓는 것이 아니라 깨뜨린다는 것을 주목하세요.

그리고 여기서 강조되는 점은 그것을 깨뜨릴 때, 그 안에 있던 모든 것, 이 모든 값비싼 향유가 쏟아졌다는 것을 보장한다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남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물론, 마가는 이것이 매우 값비싼 일이라고 말합니다.

실제로 5절에서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렸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300 데나리온은 일용 노동자의 1년치 임금과 비슷했을 것입니다. 그러니 일용 노동자와 그들의 1년치 수입이 모두 이 향유 향아리에 담겨 예수님 위에 부여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제 누군가의 머리에 연고나 기름이나 향유를 붓는 행위는 여러 가지 다른 맥락에서 일어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구약 성경 에서 왕이나 제사장이 취임하거나 취임할 때 종종 사용되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곳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의식의 일부였습니다.

또한, 그것과 관련된 메시아적 특성이 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것이 여기서 일어나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그것이 여성 측에서 메시아적 제스처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마가가 그 행위를 설명할 때, 예수가 그 행위를 해석한 것이 아니라, 마가가 그 행위를 설명할 때, 그는 기름부음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예상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조차도, 그 맥락에서 사용된 것은 향유가 아니라 기름입니다. 또한, 향유를 붓는 것일 수도 있고, 연고를 붓는 것은 헌신의 표시이자 환대의 표시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아마도 그 여인이 하는 일과 더 일치할 것입니다. 그것은 헌신의 아름다운 표현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 자신이 그것을 매장과 연결하실 것이고, 우리는 그것에 대해 이야기할 것입니다. 그것은 잠시 후에. 하지만 저는 그 여인이 그것을 예수님의 매장과 연결시키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아름다운 행동을 보여주는 것일 뿐입니다.

그리고 물론, 하지만 당신은 이 여자에 대한 질책을 받습니다. 아시다시피, 어떤 사람들은 스스로에게 분노하며 말했습니다. 여기 번역은 이렇습니다. 이 용어는 분노입니다. 이것은 예수께서 제자들이 아이를 데려오기를 거부한 것에 대해 분노하셨을 때 사용된 것과 같은 용어입니다.

아니면 제자들이 야고보와 요한이 하는 일에 대해 분개했을 때, 그들은 예수 왕국에서 가장 높은 사람이 되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사소한 불만이 아닙니다. 이 사람들은 이 여자가 그런 짓을 한 것에 분개했고, 그녀를 꾸짖었습니다. 그들은 그녀를 꾸짖었습니다. 이 번역은 이렇게 읽습니다.

그리스인들이 거기에 설정한 방식조차도, 그것은 계속적인 꾸지람이라는 생각이며, 그들은 실제로 그녀를 쫓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이것이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어질 수 있다고 말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저는 유월절 맥락이 말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들이 왜 그렇게 말했을까요? 자선을 베푸는 것은 유대인들이 기대했던 순종의 행위 중 하나였고, 특히 유월절에 그랬습니다.

이것은 유월절 저녁에 관례적으로 행해졌을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당신도 그들이 왜 이런 식으로 보는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마가복음 전체에서 알 수 있듯이, 예수님 자신도 소외된 사람들을 위해 서 계셨고, 종교 지도자들이 가난한 사람들을 무시하고, 과부들을 무시하고, 무력한 사람들을 무시하는 것을 질책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 자신의 가르침조차도 그들이 여기서 화를 내는 데 기여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예수는 다르게 대응합니다. 그의 진술, 그는 이 여자를 위해 일어난다, 그녀를 내버려두라, 왜 그녀를 괴롭히느냐? 그녀는 나에게 아름다운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14:7에서 예수님의 말씀은 항상 흥미로운 시도였습니다. 그는 말씀하셨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은 항상 당신과 함께 있고, 당신이 원할 때마다 그들에게 선을 행할 수 있지만, 나는 항상 당신과 함께 있지 않을 것입니다. 흥미롭게도, 가난한 사람들은 항상 당신과 함께 있고, 당신은 항상 그들에게 선을 행할 수 있다는 예수님의 말씀은 모세가 땅에는 항상 가난한 사람들이 있을 것이므로 그들에게 관대한 마음을 베풀라고 말한 신명기 15:11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은 가난한 사람들이 끊임없이 존재한다는 진술과 매우 유사하며, 여기서도 가난한 사람들이 끊임없이 존재한다는 것은 항상 하나님의 설계인 가난한 사람들을 섬기는 일을 할 기회가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진술을 예수께서 가난한 사람들을 무시하는 것으로 읽을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또는 돈이 있고 교회에 줄 것인지 가난한 사람들에게 줄 것인지 선택해야 한다면 교회에 주어야 한다는 진술로 읽을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것이 이 진술의 원칙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특히 교회 자체가 가난한 사람들을 옹호하고 힘이 없는 사람들을 도와야 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제 생각에 그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지금이 매우 독특한 순간이며, 이 순간을 올바르게 주목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자신, 예수님에 대한 올바른 반응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온전히 헌신하고, 호사스럽게 바치고, 여기서 예수님을 공경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이 금식하지 않는 것에 대해 말씀하셨을 때와,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때의 상황이 다르고, 아침에 금식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지만, 나중에 말씀하신 것과 유사점을 찾기 어렵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때 예수님에 대한 헌신에 올바른 초점이 맞춰지는 무언가가 있습니다.

저는 또한, 예수께서 성전에서 모든 것을 바친 과부에 대해 말씀하신 것과, 종교 지도자들이 잉여금이나 남은 것만 바친 것과 대조되는 매우 흥미로운 연관성을 봅니다. 예수께서는 이 과부가 하고 있는 일, 즉 성전에서 하나님의 일에 모든 것을 바쳤다는 것을 입증하셨습니다. 여기서, 이름이 없는 여자가 향유 향아리로 하는 일은 하나님의 일에 크고 호사스럽게 바치는 것과 비슷합니다.

하지만 그는 이 여자가 하는 일을 받아들이고, 그것을 재해석합니다. 그는 그것을 순간의 의미, 다가올 죽음의 의미로 재해석합니다. 그는 말합니다, 하지만 당신은 항상 나를 가질 수는 없을 거예요.

신랑이 떠나는 때가 올 것이다. 그녀는 할 수 있는 일을 다 했다. 그녀는 장례를 위해 미리 내 몸에 기름을 부었다.

예수께서 그녀가 여기서 한 일을 메시아 왕의 취임식이나 취임식과 연관시키지 않으셨다는 점에 유의하세요. 사실, 저는 세례를 그 취임식 설치 순간으로 보는 것이 더 낫다고 생각합니다. 기억하시겠지만, 우리는 다윗 시편과 왕의 취임에 대한 언급을 거기에 했습니다.

그는 이것을 메시아적으로 연결하지 않고, 그런 의미에서 그의 죽음과 연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매장을 위해 몸을 준비한다는 생각을 불러일으킵니다. 또한 여기에는 소형 수난 예언이 있는데, 예수가 다시 자신이 죽을 것이라고 예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1-11절을 마치기 전에 예수님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세상에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그녀가 행한 일이 그녀를 기념하여 말하리라고 선언하십니다. 이 진술에는 세 가지 예언적 요소가 있습니다. 하나는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메시아적 사명이 있고, 여기서 암시된 것은 민족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복음이 선포될 때가 올 것입니다. 둘째, 그녀가 행한 일이 알려질 것입니다. 셋째, 그녀를 기념하여 그것이 알려질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지금, 21세기 20년대가 훨씬 지난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과는 다른 언어로 먼 대륙에서 우리가 바로 이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이 매우 흥미롭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이 성취되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녀가 한 일을 기억하고, 그녀를 기억하기 위해 그것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기 에는 예언적인 아름다운 요소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그 문화권에서 높은 존경을 받았을 사람들이고, 높은 영예를 받았을 사람들입니다.

마가 복음서에 나오는 이름 없는 여자는 말할 것도 없고, 주변 사람들의 말에 따르면 연고 한 병을 낭비한 것처럼 보이는 여자도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억하고 존경하는 사람은 바로 이 사람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렇게 하라는 예수님의 말씀 때문에 존경을 표합니다.

그리고 이 아름다운 헌신의 그림, 이 헌신의 그림은 이제부터 예수님을 위해 온전히 헌신하고 서는 사람의 열정이 끝날 때까지는 거의 없을 것입니다. 이 하이라이트는 물론 10절과 11절에서 우울한 맥락으로 들어옵니다. 그러자 열두 제자 중 한 명인 가롯 유다가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그들을 배반하려고 했습니다. 그들이 듣고 기뻐하며 그에게 돈을 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를 배신할 기회를 찾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 마가복음에서, 마가는 유다가 배신한 정확한 이유에 대해 조금 덜 솔직하지만, 우리는 이 순간과 관련하여, 적어도 마가복음에서, 나머지 복음에서 더 명확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압니다. 유다는 가서 그들이 예수를 사적으로 체포할 기회를 찾도록 허락하고 동의합니다. 그것이 그들이 찾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당신은 열두 제자 중 한 명이 유다 이스가리옷을 배신하기 위해 돈을 받는다는 것을 알아차립니다. 그리고 유다는 이 이름 없는 여자에게 사랑과 헌신으로 1년치의 임금을 쏟아 부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은 더욱 가슴 아픕니다.

돈은 분명히 유다와 종교 지도자들 사이의 거래의 일부입니다. 아시다시피, 마가는 흥미롭습니다. 전체 복음 이야기는 유다의 동기나 이유에 대해 더 많이 알려줍니다.

탐욕이 작용합니다. 사탄의 영감, 지시, 거주가 작용합니다. 유다가 예수를 배신한 이유는 성전이 끝난 후 정치적 지도자로서 개입하기를 거부하고 떠났을 때, 아마도 열광자로서, 유다는 예수가 군사 봉기를 일으키지 않을 것이라고 환상에 사로잡혔기 때문이라고 주장되어 왔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유다가 단순히 예수의 손을 강제로 움직이려 했을 뿐이며, 그가 충분히 냄비를 저어줄 수만 있다면 예수가 유다가 원하는 것을 할 것이라고 제안했습니다. 그것은 2세기 복음서, 토마스의 영지주의 복음서에 나와 있습니다. 토마스의 영지주의 복음서에는 유다가 예수가 이 일을 성취하기 위해 그가 있는 필멸의 몸에서 어떻게든 해방되어야 한다는 것을 이해했다는 추측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의 명령에 따라 유다는 배신을하기로 동의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해야 할 점은, 마가복음에서 유다가 한 일에 대한 이유나 구체적인 이유를 제시하지 않더라도, 그것이 긍정적인 빛으로 제시되거나 합리적인 설명으로 제시되는 것은 확실히 아니라는 것입니다. 마가복음에서 유다는 용서받지 못합니다.

사실, 우리는 유다가 그것 때문에 심판받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마가 복음에서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누룩, 바리새인들을 조심하라고 경고하신 것을 간과할 수 없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하는 종교적 반대자들과 얼마나 가까웠는지, 그리고 얼마나 더 가까웠는지 조심하라는 경고였습니다. 제자들이 예수가 누구이고 왜 왔는지에 대한 이해나 오해가 그들을 배신이 가능한 궤도에 올려놓았다는 것입니다.

물론, 예수의 경고는 이제 진실이고 필요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유다는 시간과 장소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마가복음 14장은 12:31절에서 다시 마지막 만찬에 대한 논의로 넘어갑니다.

물론 여기에는 또 다른 느슨한, 말하자면, 마킨 샌드위치가 있습니다. 꼭 끼지 않은 샌드위치입니다. 22-25절에 최후의 만찬이 있는데, 유다의 배신과 제자들의 부인 사이에 끼어 있고, 여기서 거부의 주제가 작용합니다. 그 논의에 앞서 12-16절에 최후의 만찬의 배경을 설정하는 유월절 식사 준비에 대한 서론이 있습니다.

저는 최후의 만찬이 유월절 식사 아이디어에서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서 찾을 수 있는 여러 가지 참조 사항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 마가복음 14:17에서 15:47까지의 모든 사건은 니산월 15일에 일어난다고 생각합니다. 즉, 목요일 오후 6시부터 금요일 저녁까지입니다.

이 사건, 그 글과 묘사를 살펴보면, 매우 흥미로운 사건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저는 최후의 만찬이 유월절 식사이며, 유월절 식사의 상징적 요소가 이제 이집트에서 행하신 하나님의 위대한 행위와 연관되어 재해석되거나 지적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구절을 설정하면서, 유월절 식사와 매우 유사한 몇 가지 요소를 살펴보고 싶습니다. 여기에는 그들이 예루살렘에서 그것을 한다는 사실, 이 시기에 적절했을 사실, 유월절 식사가 끝날 때 예상되는 찬송가가 있다는 사실, 심지어 요소들과 요소들의 해석적 순간이 포함됩니다.

이제 사실로, 우리는 여기서 유월절 식사에 대한 완전한 설명을 얻지 못합니다. 우리는 쓴 허브에 대한 언급이 없습니다. 우리는 그들이 만든 벽돌을 상기시키기 위한 페이스트에 대한 언급이 없습니다. 우리는 소금물 그릇이나 어린 양고기를 먹는 것에 대한 언급이 없습니다. 우리는 아마도 가장 낮은 사람이나 가장 어린 사람이 왜 이 밤이 다른 밤과 다른지 묻는 전형적인 일정조차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유월절의 사건을 회상하는 호스트나 가장 높은 사람이 없습니다. 이것들은 없습니다. 우리는 빵과 잔을 가지고 있지만 소금물 그릇과 눈물과 흥해, 쓴 약초, 포로 생활의 쓴맛은 없습니다. 유월절 식사의 일부인 네 잔의 포도주는 출애굽기의 네 가지 약속을 위해, 내가 꺼내고, 내가 구원하고, 내가 구속하고, 내가 가져갈 것입니다.

우리는 언급된 특정 시편조차 가지고 있지 않으며, 아마도 시편 114편에서 118편 중 하나였을 것입니다. 네 번째 잔을 마신 후의 할렐 시편입니다. 따라서 이 측면에서 실제로 빠진 부분이 많고, 부분적으로는 예수님과 제자들이 유월절 식사를 했다는 것에만 초점을 맞추지 않고 예수님이 주신 특정 새로운 요소나 새로운 변화에 초점을 맞추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것으로, 여기서 마지막 만찬을 준비하는 것부터 시작하여 조금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무교절 첫날, 이것은 12절입니다. 그들이 유월절 양을 희생했을 때, 그의 제자들이 그에게 말했습니다. 당신이 유월절을 먹을 수 있도록 우리가 어디로 가서 준비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는 제자 두 명을 보내어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도시로 가십시오. 물동이를 메고 있는 사람이 당신을 만날 것입니다. 그를 따라가십시오. 그가 들어가는 곳마다 집주인에게 말하십시오. 선생님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먹을 수 있는 내 객실이 어디냐고 물었습니다. 그는 매우 큰 다락방을 보여 줄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 준비하십시오. 그리고 제자들은 출발하여 도시로 들어갔고 그가 말한 대로 되었고 유월절을 준비했습니다. 이 구절을 볼 때 흥미로운 점은 11장 1절에서 6절까지의 첫 부분과 놀라울 정도로 유사하다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자신이 타고 갈 켈트를 어떻게 가서 얻을 수 있는지에 대한 매우 구체적인 지시를 내리셨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매우 구체적인 지시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들어가고, 그는 그들에게 도시로 들어가라고 말씀하셨는데, 아마도 베다니에서 말씀하셨을 것이고, 그가 예루살렘에서 유월절을 지내고 싶어한다는 지시도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가 그들에게 도시로 들어가라고

말씀하셨고 물병을 든 사람이 여러분을 만날 것이라는 것을 매우 흥미롭게 생각합니다.

그 장면은 제가 읽은 대로, 제자들이 들어오기를 기다리라는 지시를 받은 사람이 거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미 진행 중인 사전 준비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도시로 가서 물동이를 든 사람을 찾아 그에게 물어보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는 물병을 든 남자가 당신을 만날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를 따라가세요. 그리고 그가 어디를 들어가든, 집주인에게 말하세요. 선생님은 제 객실이 어디냐고 물으십니다. 어떻게 보면 망토 와 단검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아마도, 실제로 그랬을 것입니다.

아마도 예수를 찾으려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예수는 이것이 묘사될 곳에 대한 체계를 가동했습니다. 저는 우리가 이 패턴, 이 아이디어에 있는 긴장을 벗겨낼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가서 다락방을 찾고 그는 준비합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16절, 출발하여 도시로 들어갔고, 그가 그들에게 말씀하신 대로 되었고 유월절을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저녁이 되었을 때, 유월절이 시작되었을 때, 그는 열두 제자에게 왔습니다. 그들이 저녁에 식탁에 기대어 앉았을 때, 18절에서,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 한 사람이 나를 배반할 것이요, 곧 나와 함께 먹는 자니라.

그들은 슬퍼하며 차례로 그에게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나입니까?” 그는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그는 열둘 중 하나이며, 나와 함께 접시에 빵을 적시는 사람입니다.” 이는 인자가 기록한 것이 자기에 대한 것이나, 인자를 배반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을 것입니다. 그 사람은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그에게 더 좋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먹고 있을 때, 그는 빵을 가져갔습니다. 우리가 마지막 만찬에 대해 이야기하기 전에, 그가 배신에 대해 말하는 것을 여기서

주목하십시오. 우선, 이 배경에서, 유월절이라는 친밀한 배경에서, 기억과 연합을 위해 정해진 시간, 유대인들이 자신들이 하나라는 것을 기억하고, 그들이 함께 모였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그들을 해방시키고 그들을 백성으로 세우셨으며 언약을 맺으셨다는 것을 기억하는 순간입니다.

예수께서 배신할 사람이 있다고 선언하신 것은 바로 이러한 연합의 배경에서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모두 매우 근심하고 슬퍼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서로에게 말합니다. 나인가요? 그리고 실제로 그리스어에서 언어가 어떻게 표현되는지에 대한 의미는 실제로 나인가요?가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나 아니에요? 예수께서 아니라고 말씀하실 것이라는 기대가 있는 곳입니다.

그들은 실제로 그것이 자신들인지 궁금해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그것이 자신들이 아니라고 가정하거나, 적어도 그들은 그것을 이런 식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물론 예수님은 그것이 여러분 중 하나라고 말하면서 매우 명확하게 말씀하십니다.

사실 오늘 저녁 저와 함께 여기 계시고 저와 함께 빵을 적시는 분도 여러분 중 한 분입니다. 그리고 21절에서 예수님은 자신의 배신이 놀라운 일이 아니라 실제로 인자를 기다리고 있던 운명이라고 상기시키십니다. 그는 자신이 넘겨질 것이라고, 인간의 손에 넘겨질 것이라고 예언해 왔습니다.

그중 한 사람, 즉 열두 제자 중 한 사람에 의해 시작될 것이라고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사야 53장, 스가랴 13장, 시편 41장, 다니엘 9장도 여기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리고 그는 배신자에게 두 배의 정죄를 내립니다.

제가 말했듯이 유다를 무죄로 만들려는 시도는 없습니다. 고의적인 행위가 하나님의 주권과 함께 하더라도, 그 행위에 대한 심판은 여전히 남습니다. 그리고 저는 비통함의 진술이 매우 우울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전형적으로 비통함은 어떤 집단, 어떤 민족, 어떤 나라에 주어졌기 때문입니다.

예언적 문학에서 이스라엘의 적들에게 화가 있고, 신에게 대항하는 자들에게 화가 있고, 그들의 지도자들에게 화가 있는 것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이 예언적 화가, 이 심판의 화가 한 사람에게 주어지고, 배신한 사람에게는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더 좋았을 것이라는 명확한 진술과 함께 주어집니다. 저는 이것이 성경에서 가장 무서운 진술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유다를 무죄로 만들려는 시도가 시간의 시험을 견뎌냈거나 유다 자신이 유다를 분명히 판단했을 때 유다를 변명하려는 시도가 있다는 것이 흥미롭다고 생각합니다. 그들이 먹고 있을 때, 그는 빵을 가져다가 축복하신 후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받으라, 이것은 내 몸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는 잔을 들어 우리가 감사드렸고, 그는 그것을 그들에게 주셨고, 그들은 모두 그것을 마셨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해 쏟아지는 언약의 내 피입니다. 축복이 있고, 분배가 있고, 빵에 대한 말씀이 있습니다. 감사가 있고, 분배가 있고, 공통의 잔을 마시는 것이 있습니다.

잔에 대한 해석의 말씀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께서는 빵과 잔과 관련된 상징주의를 재설계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최후의 만찬에서 그는 하나님의 백성이 탈출기 이야기에서 일어난 위대한 구원의 행위를 기억했던 유월절의 순간을 취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예수께서는 지금 이 순간을 취하고 이 빵과 이 피를 말씀하시고, 이제 하나님의 백성의 위대한 공동 식사를 재조직하고 있습니다. 탈출기 이야기에서 위대한 구원의 행위는 실제로 예수 안에서 가능한 구원의 행위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여기서 아이러니한 점은, 아니 어쩌면 아이러니가 아니라, 놀라움은 아마도 더 나은데, 탈출기 이야기에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의 상징이었던 빵과 잔이 이제 탈출기 이야기 자체가

예수와 그의 죽음과 십자가에서 하나님께서 하실 일의 상징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 여기를 가리키는 것, 지금 이것이 내 몸이라는 생각은, 나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고, 피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가 여기에 데카르트의 이원론을 부과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내 몸인지 여부는 실제로 이것이 내 피라는 것과 평행합니다. 희생이 있고, 의도가 있습니다.

이 아이디어는 사람 전체에 대한 것입니다. 빵은 사람 전체를 나타냅니다. 그리고 빵이 쪼개지는 것을 강조하고 빵의 분배와 참조 및 모든 면에서 예수님의 몸도 쪼개지는 것과 비교하고 싶은지 모르겠습니다.

제 생각에 여기서의 의미는 이 몸이 찢긴다는 것은 전체성, 희생의 전체라는 개념이며 반드시 물리적으로 찢거나 찢거나 쪼개지는 것은 아닙니다. 사람들이 유월절의 세 번째 잔이라고 추측하는 이 잔은,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한 잔에서 모두가 마신 잔이기 때문입니다. “ 내 피입니다.” 그리고 제자들의 반응은 그들이 예수께서 여기서 하시는 일을 이해했음을 보여준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그의 실제 피가 아니라, 열두 제자가 그것을 마시는 것에 대해 아무런 꺼림칙함이 없기 때문입니다. 구약성경에서 피를 마시는 것과 먹는 것 사이에는 명확한 금지 사항이 있지만, 예수께서 언약의 피와 그에 따른 희생적 측면이라는 관점에서 피에 대해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어느 정도 이해합니다.

실제로 언약의 피는 아마도 출애굽기 24장과 스가랴 9장에서 언약을 봉인하는 희생을 가리킬 것입니다. 피 속에 모든 피조물의 생명이 있다는 생각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죽음은 죄를 해결하고 언약을 봉인하는 희생 행위입니다. 이 상징주의에서 두 가지 측면을 모두 수행합니다.

죽음은 새로운 언약입니다. 구약은 이미 출애굽기 24장과 스가랴 9장에서 피로 봉인되었지만, 이것은 예레미야 31장에서 말한 새로운 언약입니다.

그리고 물론, 우리는 마가복음 10장에서 많은 사람을 위해 부어진다는 언급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가 이것을 마지막 만찬과 함께 볼 때, 위대한 언약 행위가 여전히 기억되고 있으며, 이스라엘이 유월절을 공동체적으로 기억했던 것처럼, 우리는 이제 유월절과 탈출이 가리키는 바를 공동체적으로 기억해야 합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금욕에 대해, 그는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마실 그 날까지 포도나무 열매를 다시는 마시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찬송가를 부르고 나서 올리브 산으로 나갔습니다.

여기서 예수의 금욕은 유월절 식사 전이 아니라 그 후에 시작됩니다. 그리고 잔을 마시지 않는 것에 대한 강조점은 잔치가 언제 재개될지에 대한 생각, 즉 그가 다시 잔치를 벌이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고통, 금식이 시작되는 측면이지만, 저는 여기에 종말론적 생각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수께서 마시지 않으실 메시아적 만찬에 대한 생각, 우리에게 일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모든 일이 일어날 때까지 위대한 메시아적 만찬에 참여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마가복음 14장의 나머지 부분을 이어서 이어서 시작하겠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지금 설정한 것은 예수께서 십자가를 향해 움직이기 시작하면서 배신이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의 죽음이 하나님의 위대한 이야기, 하나님과 그의 백성의 위대한 이야기, 포로에서 자기 백성을 구출하시는 하나님의 위대한 이야기와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마가복음 14장에서 다시 이것을 다루겠습니다.

이것은 마크 제닝스 박사와 그의 마가복음에 대한 가르침입니다. 이것은 세션 21, 마가복음 14:1-25, 수난, 기름부음, 최후의 만찬입니다.